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1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제 10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타리

- 1) 소사신앙촌
-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 3) 소사신앙촌 생활
-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앞에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範朴里(범박리) 桂樹里(계수리)다. 이곳 부지 14만 평에 소사 제1신앙촌을 건설한 것이다. 영모님은 이곳 주소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이곳 신앙촌이 건설된 곳은 옛날부터 예정된 장소라고 말하면서 범박리(範朴里)라고 이름지어진 이 지명도 모범적인 박씨 마을이 세워지게끔 벌써부터 예언된 곳이다. 즉 박 장로가 가끔 예정된 곳이라고 하였다. 또 계수리(桂樹里) 이곳에서는 앞으로 계수나무처럼 긴 수명을 누릴 하늘의 사람들이 살 곳이라고 예정된 장소라고 설명을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설명 내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450여 년 전의 남사고 선생은 이곳에서 계수나무처럼 긴 수명을 누리게 되고 또 이곳 신앙촌이 건설된 곳은 최고의 길지(吉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別有天地非人間 武陵仙境種桃地
 별유천지비인간 무릉선경종도지
 人壽如桂永不衰...塞65장에서
 인수여계영불쇠 새

“인간들이 아닌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인 무릉도원의 근거지로 복숭아 종자를 심어 놓은 땅이 아닌가! 이곳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마치 계수나무와 같이 영원히 늘거나 쇠퇴가 없다.”

영모님이 신앙촌 계수리의 뜻을 계수나무와 같이 영원한 수명을 누리는 곳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 격암 새6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성경 이사야서 6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거기는 어려서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 다시 없으니 대개 유아는 죽어도 100세에 죽고 죄인이 100세에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이라... 또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고...(사 65:20)”

이와 같이 격암유록의 내용과 성경 이사야 65장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이 기록된 것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吉地吉地何吉地 多會仙中是吉地
 길지길지하길지 다회선중시길지
 三神山下午鳴地 桂樹範朴是吉地
 삼신산하우명지 계수범박시길지
 初章中에서
 초장중

“길한 땅 길한 땅 하는데 무엇이 길한 땅인가? 신선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길한 땅인데 그곳은 삼신산 아래에 소울음소리 들리는 땅인 계수와 범박이란 곳이 길한 땅이다.”

이와 같이 계수리와 범박리가 길한 땅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곳은 세 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또한 소울음소리가 나는 귀한 곳이며 하늘의



소사신앙촌 출입구 전경. 지금은 철거되어 볼 수 없다

뜻을 이루기로 예정된 곳이니 길지가 안 될 수가 없다.

生旺勝地 非山非野 人富之間
 생왕승지 비산비야 인부지간
 人山人海 萬姓聚舍
 인산인해 만성취합
 末運論中에서
 말운론중

“생명이 왕성한 승리의 땅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인천부천지간인데 만가지 성씨가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도다.”

이 내용이 생명이 왕성한 승리의 땅은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곳(신앙촌이 건설된 곳)인데 만가지 성씨가 모여 있는 신앙촌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뿔뿔히 왔으니 말씨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만 가지 성씨로 된 신도

들이 모여 사는 곳인 것이다. 그러나 그 예언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 예언인가.

더욱이 소사 신앙촌이 건설된 이곳은 자유당 시절 장관을 지낸 박모 씨의 기증에 의하여 된 곳이다. 영모님이 이곳에 신앙촌을 건설하려고 주인을 찾아 만났는데 그 땅주인이 그 부지를 영모님께 회사한 것이다. 박모 씨의 조상의 유언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유언인 즉 '이곳은 하늘의 뜻을 이룰 성인군자가 사용할 땅이니 그분이 나타나거든 이곳은 그분이 주인이니 그분에게 거저 드려라' 라는 유언이다. 그래서 박모 씨는 영모님의 말을 듣고는 '아! 이분이 바로 그 주인이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영모님께 이 부지(敷地)를 회사한 것이다. 얼마나 드라마같은 이야기인가!

이 신앙촌이 건설된 이곳 소사구 범박리와 계수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예정된 귀한 곳이다.

3) 소사신앙촌 생활

이와 같이 소사신앙촌 역사의 시작은 죽음과 좌절만 남겨놓고 있는 듯한 인류에게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영원히 죽지 않는 희망찬 새 아침이 열리고 있다!' 고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과연 이 신앙촌의 생활은 힘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서 동녘에서 태양이 붉게 훤히 타며 힘차게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희망이 넘쳤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들의 후보자들이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이곳은 죄와는 상관없는 곳이고 이곳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영모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눈길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이곳에서는 되는 것 같았다.

영모님은 신앙촌 안에 무인판매소를 만들어 놓았다. 그 무인판매소는 각종 물건을 진열해 놓고 정가를 써 놓았다. 누구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정가대로 돈을 돈봉투에 넣고 사가면 되는 것이다.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부심은 사실 무인판매소에서 입증되었다. 많은 물건이 팔렸지만 금액은 한 푼도 차이가 없었다. 그 당시 처음 입주한 신앙촌 사람들이 얼마나 새 마음을 가지고 죄를 안 짓고 빨리 이루어져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왕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신앙촌은 천국이요, 회개에야하고 서로 배려하고 웃음이 넘쳐나니 이곳이 틀림없는 천국인 것이다.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이런 때에 영모님은 신앙촌사람들의 들뜬 마음도 진정을 시키고 또 신앙촌사람들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듯하다. 그래서 하루는 영모님은 단에 서서더니 첫말씀이 “소사신앙촌에 법을 세우겠다. 오늘부터 한 단계 법을 끌어 올리겠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다들 마음에 긴장이 되었으나 그러나 예배를 보고 나와서는 영모님의 단에서 말씀하신 ‘법의 선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신앙촌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죽어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멀쩡하고 건장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고 밥을 먹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어떤 선생은 학교서 강의하다가 죽었다. 신앙촌 안이 발각 뒤집어졌다.

그렇게 회개에야하고 희망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던 소사신앙촌이 공포의 신앙촌으로 바뀌었다. 그제서야 영모님이 단에서 법을 선포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든 신앙촌 사람들은 일은 안하고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며칠 동안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니 영모님께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 듯 다음날 새벽 단에서 “더 이상 법을 세워 놓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으므로 법을 거둔다”고 ‘법 취소’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한 마디 말씀이 이와 같이 엄청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

知不知尙

지부지상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은 높이 숭상받고



도덕경 71장 해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약하고 죄된 것 중에 하나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처럼 꿀볼견도 없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배워 아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외면당하기도 한다.

도인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는 것이다. 반면에 무도인은 모르는 것을 수치스런 일로 여기고, 아는 척 위장한다. 그래서 추하고 멀리하게 된다.

항상 자신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인(善人)에 속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고 자존심이 없어

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악인에 속한다. 그의 언행은 오만하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른다. 선인은 이 땅 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악인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선인이 많아져야 한다. 오늘날 세상 살기가 버거운 것은 악인이 많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도인이 많이 나와야 세상 살기가 좋아지고, 무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롭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만다. 모든 사람이 도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다.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를 닦기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위

태한 세상이 된 데에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설불리 잘못을 저지른 것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르면서 저지르는 한두 번의 실수와 과오는 용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마치 잘 아는 양 설레발치는 가운데 벌어지는 실수와 과오는 용서가 안 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피해는 그렇다손 치지만, 중대한 사안과 사람의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늘 상 잘 아는

것일지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도의 세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도를 모르는 사람이 도를 아는 양 흑세무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도를 가지고 발뺌이를 하고, 또 그것으로 명성과 부귀영달을 좇는 자가 부지기수다. 이들이 인간과 만물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천벌이 가을 서릿발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숨은 이치를 모르고서 무사할 줄로만 알고 착각 속에 마냥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마치 그 무지의 감옥에서 벗어난 양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파렴치한이 있다. 진정으로 무지의 감옥에서 벗어난 도통한 사람이라면,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과 만물은 또 어떻게 탄생하였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 가는지, 복과 운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된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곳에 있다. 승리제단에는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 도가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참 종교가 있고, 참 학문이 있다. 바로 인생 불행의 제 문제를 낱알이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로장생하면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불멸의 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도, 진리, 종교, 학문이 있는 이곳을 찾아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知不知尙(지부지상):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은 높이 숭상받고

不知不知病(부지부지병):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면 병이요

是以聖人之不病(사이성인지불병): 그러므로 성인은 병에 안 걸렸다는 것은

以其病病(이기병병):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병을 병으로 여김으로써
是以不病(사이불병):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요.*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